

문화예술로 물든 여수, 세계가 반하다

지난해 1508만여명 방문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부상
밤바다, 버스킹 메카 우뚝
엑스포아트갤러리
수준높은 국내외 전시
충무공 유적지 복원 박차

여수시가 밤바다 버스킹과 엑스포아트 갤러리 등 여수만의 문화예술 콘텐츠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 수는 1508만5000여명으로 전년 보다 15% 가량 증가한 가운데 여수시는 남만버스킹과 우리동네 청춘버스킹으로 문화예술 감성을 자극,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계획이다.

여기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쉬는 살아 숨쉬는 문화유적지로 대대적으로 보수·복원해 유적 관광지로의 옛 위상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여수밤바다 버스킹의 메카로 우뚝선다=여수시는 지난 2015년 첫 남만버스킹 공연을 시작했다.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버스킹들의 공연은 여수를 문화예술이 숨쉬는 낭만의 도시로 만들었다.

관객들도 첫해인 2015년 15만명에서 2016년 17만 명, 2017년 23만 명 등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 역시 오는 4월 20일부터 6개월 동안 여수해양공원 일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버스킹 205개팀이 밴드음악과 댄스, 마술 등 화려한 거리공연을 펼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처음 열린 여수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에 6만여명의 관람객들이 몰리며 지난해 8월 4일부터 3일 동안 화려한 여수 여름밤을 만끽했다. 올해 페스티벌은 지난해보다 1억원의 예산이 증액돼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더욱 즐겁게 할 계획이다.

이처럼 여수밤바다 인근 원도심에 남만 버스킹이 있다면 신도심에는 '우리동네 청춘버스킹'이 있다. 청춘버스킹 공연은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매주 토요일 여서·웅천·소호동 일대에서 펼쳐졌으며 올해는 7080세대와 청춘, 가족, 오디오션, 연인 등을 주제로 특색 있는 공연이 더해진다.

◇엑스포아트갤러리 등 예술 전시공간 확대=여수 엑스포아트갤러리는 대표적인 지역 전시 공간으로 여수시가 시민·관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버스킹 공연은 여수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낭만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 지난해 여름 열린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 공연 모습. (위) 엑스포아트갤러리 전시장. <여수시 제공>

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억6400만원을 들여 지난 2016년 개장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한국관 3층에 위치한 엑스포아트갤러리 그동안 '현대미술의 흐름을 엿보다'와 '여수의 미풍', '부비부비전' 등이 열렸다. 현재 한국 근대사회 모습이 담긴 흑백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로 4월 20일부터는 '소통'을 주제로 서울 송파구·전남 동부권 작가 초대전이 열릴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독도 사진전, 7월에는 운성필 작가의 '기운생동(氣運生動)' 특별 전시회, 10월에는 남도 서예전이 잇따라 기획돼 관람객을 기다린다.

특히 오는 9월 14일부터는 전 세계 현대 미술 작가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여수 제 8회 국제아트페스티벌이 31일 동안 개최된다. 회화, 서화, 조각 등 분야에

서 미국·독일 등 15개국과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25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문을 연 '고소대' 인근에 달빛갤러리도 2층(연면적 79.14㎡)의 아기자기한 규모로 친숙한 전시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훈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 보수·복원=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머물던 전라 좌수영 본영인 국보 제304호 진남관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모니터링 결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총 150억원이 투입되는 보수공사는 오는 2020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4500여개에 달하는 자봉 기와 해체작업이 진행 중이다. 관람객들은 사전예약을 통해 매월 짝수 주 토요일 오전·오후 두 차례 보수현장을 관람할 수 있다.

여수시는 이순신장군이 집무를 보던 동

헌 복원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215억 원을 투입, 동헌 내 운주헌, 결승당 등을 복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여수시민·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여수시민합창제와 여수음악제, 마창페스티벌, 신도심지역 토요 상설공연 등이 이어진다. 또 선소 유적 탐방, 여수향교 체험, 흥국사 체험 등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이달부터는 진남관 일원에서 이순신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문화재 여행(夜行)'도 열린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1500만 관광도시 여수의 품격은 수준 높은 지역 문화예술 수준과 환경,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등이 큰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관광객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기회를 더욱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세계 최대 '빅오쇼' 31일 개막

11월 17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분수쇼 '빅오쇼(Big-O Show)'가 여수 밤바다를 다시 수놓는다. <사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사장 송대수)은 빅오쇼(Big-O Show)가 오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여수박람회장에서 펼쳐진다고 19일 밝혔다.

빅오쇼는 바다를 배경으로 설치된 '디오(The-O)'라는 원형 조형물 안에서 물과 불, 화려한 영상과 레이저 효과가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세계 최대의 해상 분수쇼이다.

여수박람회장 재개장 후 현재까지 64만명이 빅오쇼를 관람했다. 지난해 약 14만명이 관람하면서 명실상부한 여수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빅오쇼 관람은 빅오쇼 누리집(http://bigo.expo2012.kr)과 소셜커머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예매 후 현장에서 입장권으로 교환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 발급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모



바일 입장권만 제시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예매한 경우에도 좌석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부터 28일까지 빅오쇼 개막을 기념하는 퀴즈 행사도 열린다. 이벤트는 빅오쇼 공식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퀴즈 당첨자 1등(10명)에게는 빅오쇼 무료 관람권(1인 2매), 2등(30명)에게는 캐릭터 상품 등 경품을 증정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에 보석가공 체험장·분재마을 조성

여수에 새로운 관광지인 보석가공 체험장과 분재마을이 조성된다.

여수시는 19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주)사암기술연구원(대표 윤춘철), 화양분재마을정비조합(조합장 김용목)과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철현 여수시장과 윤 대표, 김 조합장 등은 각각 150억 원, 225억 원 등 총 375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사암기술연구원은 돌산읍 우두리 2만1068㎡ 부지에 2019년 3월까지 보석가공 체험장을 조성한다.

부지 안에는 보석판매 전시장, 보석

전문가 양성 교육장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신규 고용 인원은 30명 정도로 전망된다.

사암기술연구원은 제주도에서 진주양식·가공·판매, 패류 연구사업 등을 하는 기업으로 본사를 여수로 이전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분재마을은 화양면 나진리 9만8431㎡ 부지에 들어선다.

화양분재마을정비조합은 70명의 조합원을 구성해 2020년까지 분재마을을 만든 후 관광객들에게 분재 감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상반기 특별교부세 20억 확보

여수시가 정부로부터 일차로 창출과 지역 SOC 확충에 투입될 상반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엔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여수 이순신도서관 건립 등 7개 사업 20억원이다. 세부사업은 여수 이순신도서관 건립

5억원, 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4억원, 동여수노인복지관 기능보강 3억원, 서시장 주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3억원, 소리도서관 구조보강공사 5억원 등이다.

시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불편 해소 위해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한 달간 보청기 무상 대여”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모든 방문 고객 선물 증정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